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6 4

성난 파도의 나날

성난 파도와도 같은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젯밤 오차노미즈에서의 강연을 마치고 귀가하는 중입니다. 각지에서 모인 약 40 명의 음악가 분들에 의해 개최된 지진재해 지원 콘서트에서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클래식 음악회 3 일 후에는 완성되어가고 있는 날개모습의 저희 교회에서 지역 분들을 위한 피로연을 갖게 됩니다.

마치 파도타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 일 전에는 공사가 늦어져 거의 공사 현장 같은 교회에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번 달은 세례식이 있고 다음 달은 다시 결혼식이 있습니다.

아마 어떻게든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있어도 이제까지 잘 견디며 여기까지 왔으니 먼 장래를 이것 저것 지나치게 걱정해서 에너지를 다 써버려 멈춰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비집고 들어오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전서 5 장 7,14 절

우리의 걸음 걸음마다 또한 그 앞의 미래도 우리가 서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사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고, 마음을 조금씩 하지 말고 평온한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하라고 성경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화제를 돌려, 어제 저녁 뉴스에서 저희들의 교회가 방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때 도쿄에서 강연 전이었기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전국 뉴스로 방영되었다고 방송국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방영 직전까지 편집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강연 전이었지만 어떤 프로그램이 되겠는지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제작해 주신 세 차례의 프로그램도 텔레비전 크루(crew)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며 저희들을 촬영해 주셨습니다. 보도 관계자 분들이 저희들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오셨기 때문인지요. 아니면 지진재해를 지원해주시는 마음에서 였는지요. 이번 취재 중에도 눈물을 흘리신 분들이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결혼식을 하게 된 자매에게도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신부는 지진재해로 고향에서 쫓겨나와 인접한 다른 현으로 피난했습니다. 지진 재해 전에 신축한 건물에서 주거와 영어 스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어교육에 정열을 쏟고 있던 중에 지진재해를 당한 것입니다. 영어 클럽은 곧 폐쇄가 되었고 고심하며 신축한 집도 잃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는지요.

재해를 당하기 전에 그녀는 교통 사고로 사랑하는 언니를 잃고 그 후에 그녀의 어머니도 술취한 운전사로 인하여 교통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픔을 안고서 어두운 터널을 겨우 빠져 나와 이렇게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 바로 그시점에서 또 다시 그녀를 덮쳐온 것이 지진 재해였습니다. 집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피난한 그 곳에서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된 신랑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녀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슬픔이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깊은 상실감 속에서도 밝은 내일이 예비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하나님이 예비해주신 미래가 있다는 것을 믿고 다음 장의 문을 열고 나아가도록 합시다.

이번에 방송제작진은 이틀 후에 행해진 '3.11 기도집회'도 녹취했습니다. 진도 7 약의 대지진이 일어난 오후 2 시 46 분에 맞추어 고향을 향해 저희 모두는 다같이 손잡고 서서 묵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지진재해 전에 고향의 정겨운 추억등을 함께 나누며 또한 고통스러웠던 지진 재해 이후의 험한 도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언제고 생각날 때마다 가슴이 짓눌려 미어지며 그 어디에도 확 트인 청정한 하늘이 보이지 않고 안개에 싸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
이 날들의 끝은 언제가 되겠는지요?

지금 JR 천(泉)역 구내에 전철이 도착했습니다. 역에 애기동백이 피어 있습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 제 고향집의 애기동백, 올해도 피어났겠는지요?

3 월 13 일(수) 아침 조반선(常磐線)에서

*알림: 18 일(월) ~19(화)

텔레비전 아사히 '텔레멘터리' 30 분 프로그램

'3.11. 잊을 수 없는 원전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가 방영됩니다.

심야시간대입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각 현(縣)의 방영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인에게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